

# '뉴전스 프렌즈' 준비·제이비 탄생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마스코트 공개... 도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동물 캐릭터 활용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대표 마스코트를 공개했다.

재단에 따르면 운영 47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핵심 가치를 담아 상징물로서 마스코트를 개발했다. 특히, 비전과 미션을 지향하는 상징물, 도민과 고객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 기본 캐릭터에서 가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 우리나라 전통 오방색을 활용해 남녀노소 사랑받을 수 있는 디자인 등을 담았다.

먼저 기본 캐릭터인 마시멜로는 전라북도 인기 상품인 초코파이를 상상하며 탄생했다. 초코파이 양쪽 초코빵을 문화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마시멜로를 전라북도라는 이미지로 상상했으며, 초코파이의 정(情)을 사람을 품어이라는 의미를 재단 미션과 빚대어 만들었다.

또한, 도민과 고객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십이간지와 오방색을 활용해 기본 캐릭터가 매년 탈을 쓰는 이미지로 창의적인 뉴전스 프렌즈 세계관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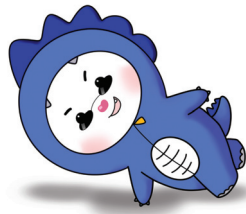
재단은 십이간지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면서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차별화하기 위해 마시멜로(기본)라는 반전 캐릭터를 표현했다.

여기에 이름, 스토리, 성격, 특기, MBTI 등의 의미를 더해 연도별 캐릭터를 생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는 계묘년으로 흑토끼 탈을 쓴 준비(Jubi)를 탄생했다. 수줍음이 많아 수줍이로



2023년 마스코트 준비



2024년 마스코트 제이비

불리는 캐릭터로 내성적이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INFP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다. 부끄러움에 어색한 미소와 발그레한 볼이 매력 포인트며, 소문내기가 특기다.

내년 갑진년에는 청룡 탈을 쓴 제이비(JayBi)로 미국 가수 JayZ를 동경해 탄생시켰다. 준비와 같이 유명해지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ENFJ의 성격을 가진 캐릭터다. 열망 가득한 장구 눈썹과 땃나가 포인트며, 2024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단을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겨 있다.

특히 이경운 대표이사는 취임 당시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재단 내 직원 역할을 강화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힘을 쏟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예술회관운영

팀(이하 운영팀)에서는 뉴전스세계관과 뉴전스 캐릭터를 개발했다.

뉴전스는 'New Jeonbuk Story' 약자로 새로운 전북 이야기를 동네 친구처럼 편하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며, 당시 뉴전스 캐릭터로 친숙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흑토끼로 제작했다.

디자인 개발자 이주영 운영팀원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으면서 책임감이 커졌다. 열심히 제작한 만큼 많은 도민과 고객이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통해 도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4년에는 마스코트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아동·청소년 위한 인권콘서트 '소풍'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내달 7일 진행

오는 12월 7일 오후 7시 30분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콘서트 '소풍'이 사단법인더문화의 주관으로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아동,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에게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와 음악을 통해 인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음악의 힘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이번 콘서트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 음악의 매력을 전하고자 특별한 연주자들인 김태극(리더, 보컬, 어쿠스틱 기타), 변현우(건반), 이정민(보컬), 김성래(기타)가 참여하여 아동,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음악의 매력을 전하고자 한다. 팀의 리더인 김태극은 MBC 위대한 탄생 시즌 2 TOP12 생방송 진출과 JTBC 히든싱어 이문세 편, KBS 예뵤 TV 크리에이터에 출연했고 많은 음반과 음원으로 풍부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가수이며, 팀원들 또한 음악적 소양이 풍부한 연주자들이다.

이번 공연에서 연주될 프로그램으로는 알라딘Lost-A whole new world, 아이유·반편지,



이문제-신호등, 김태극-봄에, 아이유-스트로베리 문, 지오디-김, whom-Last christmas, 이문세-깊은 밤을 날아서 등 다양한 곡들로 준비가 되어있다.

이 공연은 전석 1만원이며, 네이버 예매를 통해 좌석 선택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전주교대-전북도립미술관, 업무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8일 대학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전북도립미술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춘 총장, 장지성 교무처장, 최경은 학생처장, 정영식 기획처장과 이애선 미술관장, 정우석 학예연구팀장, 체지연 학예연구사, 채연석 학예연구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협력사업 활성화 △학예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기타 협약 기관의 공동 발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애선 미술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교대와 공동의 사업을 실현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전북도립미술관과 함께하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다양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지식살롱 시즌1' 성료

'2023 전북지식살롱' 시즌1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8일 전북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전북지식살롱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전북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로컬 대표 커뮤니티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3월 8일을 시작으로 매월 2회씩 진행, 총 700여 명의 청중이 살롱을 방문했다. 강연자는 모두 16명으로 관광, 광고 및 홍보·마케팅, 전문문화 기획자, 빅데이터 및 AI, 대학생 유튜브 등 업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특히 강연자들의 지식기부를 통한 네트워킹과 관계인구 형성이다. 강연자 16명은 고향사랑 재능(지식)기부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대응사업 추진으로 관광 생태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1회차 강연자인 서경중CD는 무주군과의 연계를 통해 대상그룹의 지식존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6회차 강연자인 이가은 대표는 한국관광공사, 고창군, 재단과 함께 고창 운곡습지 트래킹 대회를 추진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 무형유산 송년공연 '무형성찬'

국립무형유산원, 내달 9일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2월 9일 오후 4시 열수미루 대공연장에서 송년공연 '무형성찬無形盛饗'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형성찬無形盛饗'은 한국적 정서에 녹아있는 한(恨)과 신명을 줌·동시대·명인이라는 화두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 공연으로, 안대천(고성오광대 이수자), 이주원(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의 사회로 음악과 무용, 명인, 민요, 굿음을 주제로 가무악화가 종합 구성된 공연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음악의 성찬에서는 재즈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장은 엘에이씨(LAC)밴드가 새롭게 구성된 '종묘제례악 전폐회문', '아희원랑 중 연날리기'를 연주한다. 소리꾼 정윤형과 배장은 엘에이씨(LAC)밴드가 판소리 적벽가 중 '불지르는 대목'을 소리와 재즈의 협연으로 함께 펼치는 합동 무대다.

또 무용의 성찬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안덕기(처용무 이수자) 교수의 무용단안덕기움직임연구소와 예술단체 거인아트랩의 '현의

소리, 그 여백을 물들이다'가 공연된다. 살풀이춤의 미학과 거문고를 비롯한 한국 악기들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명인의 성찬에서는 사물놀이의 대명사 김덕수 명인이 선보이는 '울림'의 첫 공연이 펼쳐진다. 한국전통예술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경기무속음악 중 율림제 장단을 활용해 화려한 리듬과 정제된 음악의 신명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덕수 명인과 색소폰 연주자이자 제작자(프로듀서)인 제이슨리, 베이스 연주자 스노잡이 함께 연주한다.

민요의 성찬에서는 한국의 사머니즘, 노동요, 전통장단 등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어 현대적 이미지와 감수성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선보이는 국악밴드 '더튠(THE TUNE)'이 선보이는 민요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굿음을 성찬에서는 연희공연단체 '처랏'이 등장해 관객들에게 연희의 흥과 멋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 예약은 29일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무료관람이다. 공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